

경주시부는 4300여 조합원 동지들을 믿고 투쟁하겠습니다!

자랑찬 경주시부 조합원 동지여러분!

차가운 칼바람을 이겨내고 새 생명의 온기가 넘쳐나는 지금 우리는 2023년 투쟁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부자 감세로 세수는 부족하고, 굴욕외교로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지켜야 할 생명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발표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경제는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 신기록을 하루가 다르게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에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힘없는 국민들은 사지로 내몰려도 모른척하면서 재벌과 기득권의 작은 상처에는 화들짝 놀라며 보호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정 동력이라고는 민주노총 파괴를 기반으로 극우 지지자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은 조합원동지들의 참여와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아닌 누구도 대신 해서 싸워 줄 수도 없고 요구를 관철 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임금인상 투쟁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투쟁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장시간 노동으로 겨우 생활하는 우리에게 귀족 문운하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과의 투쟁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가까운 5월 1일 노동절에 많은 참여로 금속노조 일원으로 책무를 다하며 언제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줄

경주시부 4300여 조합원들에 기운을 높이는데 함께 합시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큰 물결에 함께 합시다.

언제나 동지들 곁에 자랑찬 금속노조 18만이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시부 지부장 정진홍